



영국 런던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프리미어리그 스토크시티 FC와 홈경기에서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왼쪽 두 번째)이 시즌 7호 골이자 정규리그 4호골을 터뜨리고 있다. 손흥민은 이날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물오른 골감각... 3경기 연속골

최근 6경기서 4골 폭발... 토트넘 5-1 대승 이끌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3경기 연속 득점포를 터뜨렸다.

손흥민은 10일 열린 2017-2018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스토크시티와 홈경기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5-1 대승을 이끌었다.

시즌 7호 골이자 정규리그 4호골을 넣었고, 시즌 3호 도움이자 정규리그 1호 도움을 기록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프리미어리그 왓퍼드전, 7일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아포엘전에 이어 이날 득점까지 포함해 최근 3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었다. 아울러 최근 6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며 물오른 골 감각을 과시했다.

그는 1-0으로 앞선 후반 7분 역승 과정에서 골을 넣었다. 팀 동료 델리 알리의 스투패스를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받아 오른 쪽으로 치고 들어간 뒤 오른쪽으로 골을 만들었다.

토트넘은 5-1 대승을 거둬 최근 4경기 무승 부진에서 벗어났다.

손흥민은 이날 토트넘이 기록한 5골 중 3골에 관여했다.

그는 4-2-3-1 전술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 역할을 맡았다. 원톱에 해리 케인이 출전했고, 손흥민과 델리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2선을 책임졌다. 자신의 주포지션인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전반 12분 왼쪽 측면에서 아크서클로 드

리블한 뒤 오른쪽 슈팅으로 팀의 첫 유효 슈팅을 기록했다.

전반 21분엔 선취골에 역할을 했다. 그는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날렸는데, 이 공이 상대 팀 수비수 커트 조우마의 발을 맞은 뒤 라이언 스크로스의 가슴을 맞고 골대 바로 들어가면서 자책골이 됐다.

전반 25분 토트넘 진영에서 상대 팀의 크로스를 헤딩으로 가로챈 뒤 상대 문전까지 거침없이 드리블해 직접 슈팅까지 날린 그는 전반 31분엔 왼쪽 측면에서 세 차례 연속 코너킥을 만들었다. 왼쪽 측면을 돌파해 크로스를 날리다 상대 수비를 맞고 골라인 아웃되는 모습이 세 차례나 반복됐다.

전반 34분엔 후반에서 크로스를 날려 해리 케인의 헤딩슛 기회를 만들었다. 1분 뒤에도 상대 허를 찌르는 스투패스로 해리

케인의 오른쪽 슈팅 기회를 유도했다. 전반 41분엔 상대 수비수를 맞고 나온 것을 논스톱 발리슛으로 연결하기도 했다.

1-0으로 앞선 후반전에서도 손흥민은 펄펄 날았다. 후반 9분, 포문을 여는 골을 작렬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후반 29분 폭풍 드리블에 이은 정확한 침투패스로 에릭센의 골을 도왔고, 후반 41분 체력 안배 차원에서 페르난도 요렌테와 교체됐다.

한편, 스완지시티의 김성용은 이날 웨스트브로미치와 정규리그 16라운드 홈경기에서 풀타임 출전해 1-0 승리에 힘을 보탤

후반 36분 김성용의 왼쪽 코너킥이 상대 문전에서 흘러나왔고, 혼전 상황에서 윌프리드 보니가 결승 골을 넣었다. 크리스티안 팰리스의 이적용은 결정했다.

/연합뉴스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가 10일 세비야와 홈경기에 앞서 5개의 발롱도르 트로피를 놓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호날두는 지난 8일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서 열린 제62회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개인 통산 다섯 번째 발롱도르 트로피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호날두 5번째 발롱도르

메시와 동률... 라리가서 자축 멀티골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클럽 레알 마드리드의 골잡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를 수상한 것을 자축하며 멀티골을 터뜨렸다.

호날두는 10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17-2018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5라운드 세비야와 홈경기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23분 추가골에 이어 전반 31분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추가했다.

호날두는 이를 전인 8일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서 열린 제62회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를 제치고 개인 통산 다섯 번째 발롱도르 트로피를 차지한 것을 자축이라도 하듯 이날 절정의 골 감각을 뽐냈다.

정규리그에서는 지난달 26일 말라가전에서 42일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리그 2호골을 기록했을 정도로 부진했던 호날두는 멀티골로 득점 행진 재개를 알렸다.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 시작 3분 만에 터진 나초 페르난데스의 선제골로 기선을 잡았다. 이어 호날두는 전반 23분 마르코 아센시오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강한 오른발 슈팅으로 세비야의 오른쪽 골문 구석을 꿰뚫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31분 세비야 공격수 헤수스 나바스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호날두는 오른발 슈팅으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3-0을 만드는 등 5-0 대승을 이끌었다. /연합뉴스

평창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출전권 확보

한국, 사상 첫 올림픽 피겨 전 종목 출전

한국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단체전(팀 이벤트) 출전권까지 확보하며,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피겨 전 종목 출전의 쾌거를 이뤘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10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캐나다,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평창올림픽 단체전 출전국 10개국 명단을 발표했다고 미국 NBC방송이 보도했다.

올림픽 피겨 단체전은 각국에서 남녀 싱글과 페어, 아이스댄스 4개 종목에서 1개팀씩 출전해 합산한 점수로 순위를 가린다.

단체전 출전국은 피겨 4개 개인종목 가운데 3개 이상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2017-2018

ISU 그랑프리, 세계선수권대회, 4대륙 선수권대회 등 7개 대회의 종목별 점수를 합산해 선정했다.

개인종목 3개 종목 출전권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이번 시즌 주요 대회 성적을 바탕으로 한 단체전 랭킹에서 10위를 차지하며 적극적으로 단체전 출전권을 얻었다.

역사 최다팀(수리코)이 지난 4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0위 안에 들며 여자 싱글 출전권 2장을 확보한 데 이어 남자 싱글의 이준형(단국대)과 아이스댄스 민유라-캐린 알렉산더 조가 9월 네벨혼 트로피에서 각각 출전권 1장씩을 가져왔다. 남자 싱글과 아이스댄스의 올림픽 출전은 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 이후 16년 만이다. /연합뉴스

축구, 남·녀 남북대결 “첫 승 잡아라”

E-1 챔피언십 2차전

오늘 오후 4시10분 여자팀

내일 오후 4시30분 남자팀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1차전에서 승리 소식을 전하지 못한 남·녀 축구대표팀이 하루 차이로 이어지는 남북대결에서 대회 첫 승을 노린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 대표팀은 11일 오후 4시 10분 일본 지바의 소가 스포츠 파크에서 북한과 맞붙는다.

여자 대표팀은 8일 1차전 한일전에서 2-3으로 패해 승점을 따지 못한 채 1차전 승리팀인 북한, 일본(이승 승점 3)에 이어 3

위에 올라 있다.

지난 4월 평양 원정에서 북한과 1-1로 비겼으나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본선 티켓을 따낸 여자대표팀은 이제 8개월 만에 북한과 '리턴 매치'에 나선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북한이 10위로 15위인 한국보다 앞선다. 상대 전적에서도 한국은 18차례 맞대결에서 단 1승을 거둬 열세다. 2005년 이 대회 맞대결에서 1-0으로 이긴 게 유일한 승리다. 무승부도 3차례뿐이다.

지난 일본전에서 대표팀은 수비 집중력에 약점을 드러내며 패했으나 전력이 한수 위인 일본을 상대로 두 차례 추격에 성공하며 선전했다. 특히 2-2 동점골로 세 번째 A매치에서 두 번째 골을 기록한 '신

성' 한채린(위덕대)이 북한을 상대로도 활약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다음 날인 12일 오후 4시 30분에는 도쿄의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남자 대표팀이 북한과 대회 2차전을 펼친다.

대표팀은 9일 중국과의 1차전에서 앞서가다 후반 동점 골을 허용해 2-2로 비기고 승점 1을 따내 1차전 북한을 꺾은 일본(승점 3)에 이어 2위에 자리했다.

남자부 최초의 대회 2연패를 노리는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승점 3을 챙기지 못하면서 도전의 분수령을 맞았다. 북한과의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역대 한국과 북한의 A매치 전적은 6승 8무 1패로 한국이 단연 앞서지만 이 대회에서는 2005, 2008, 2015년 맞대결 모두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빙속황제’ 이승훈 월드컵 매스스타트 우승

ISU 월드컵 4차 대회

시즌 월드컵 두번째 금

‘빙속황제’ 이승훈(대한항공)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매스스타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매스스타트 최강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승훈(대한항공)은 10일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17-2018 ISU 월드컵 4차 대회 마지막날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막판 매서운 스피트

를 펼치며 1위로 들어왔다.

지난 1차 대회 금메달에 이어 이번 시즌 월드컵 매스스타트 두 번째 금메달이다.

매스스타트 세계랭킹 1위인 이승훈은 이날 출발 후 초반에 잠시 선두에서 그룹을 이끌다 곧바로 후미로 쳐져 유유히 레이스를 펼쳤다.

초반에 러시아 다닐라 세메리코프가 앞으로 치고 나와 후미그룹과의 간격을 반바퀴 이상으로 벌렸으나 동반자 없이 독주를 펼치다 보니 후반 들어 속도가 떨어져 마지막 바퀴에서 추격을 허용했다.



세메리코프가 독주를 이어가는 동안 이승훈과 함께 출전한 정재원(동북고)이 후미 그룹을 이끌며 선두와의 간격을 좁혔

고, 이어 이승훈은 마지막 바퀴에서 맹렬하게 스피트를 내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연합뉴스